



“한국의 SMART와 EU-APR에 상당한 관심 보여”

현종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경영기획실 차장



한국관 운영요원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중국국제핵전공업전람회(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on Nuclear Power Industry, 이하 CIENPI)가 4월 27~29일 3일간 중국 베이징의 중국국제전람중심(中国国际展览中心,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1995년부터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CIENPI는 CNEA(중국핵능행업협회)가 주최하고 CNNC(중국핵공업 집단공사), CGN(중국광핵집단공사), SPIC(국가전력투자공사) 등 중국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정부기관에서 후원하는 공신력 있는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총 8개 홀로 구성된 전시장에서 4, 5홀은 중국 국내 기업, 2, 3홀은 해외 참가 기업의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는데 200여개의 업체 및 기관이 13,650m²의 공간을 가득 메웠다.

우리나라는 2홀의 중앙에 한국원자력관(Korea Nuclear Pavillion)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전시 부스 앞에는



한국관을 방문한 중국대표단



한국관을 방문한 체코대표단

ROSATOM(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이 자리를 잡았다.

원전 전 주기 내용 전시한 한국관,

한국원자력관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업(주)가 참여하여 고유의 기능에 따라 원전의 설계(한국전력기술(주))에서부터 기기 제작 및 시공(두산중공업(주)), 연료 생산(한전원자력연료(주)), 원전 운영(한국수력원자력(주)), 유지보수(한전KPS(주)) 등 원전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원자력 관련 내용을 전시하였다.

올해 CIENPI의 키워드는 단연 ‘신기술’이었다. 각국에서 참가한 원전 운영사들은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 모델 등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기술력을 뽐내는 가운데, 중국은 3세대 원자력 자체 기술 브랜드인 ‘화룡(華龍, HPR-1000)’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화룡1호’는 CNNC와 CGN이 공동 연구 개발한 브

랜드로, 50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거치며 70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해 온전한 지적재산권 체계를 갖췄으며, 핵심 설비의 85% 이상을 국산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2세대 원전 기술에 비해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한다.

중국의 원전 운영사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국 원자력산업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에 이은 제3의 화룡 원전 도입국을 모색하고 있었다.

여러 제조업체들 역시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여 참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 구매 담당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중소기업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최 측인 중국은 CAEA(중국 국가원자력기구)의 Liu Yongde 사무총장, CNNC(중국핵공업집단공사)의 Wang Shojun 회장, SASTIND(국방과학기술공업부) 부국장 등 정책 결정자들이 대거 한국관을 방문하며 한국 원자력산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교류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 기술 집합체인 화롱1호기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펼쳤다.

체코대표단, EU-APR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토론

한국원자력관을 방문한 참관객들은 중소형 원자로(SMART)와 유럽형 가압경수형 원전(EU-APR)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자신을 몽골 정부관계자이자 대사라고 소개한 J. Enkhsaikhan 박사는 SMART와 한국형 원전에 관한 추가 자료 송부를 정중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목되었던 점은 체코의 렌카 코바쵸브수카(Lenka Kovacovska) 산업통산부 차관, 토마스 스메진칼(Tomas Smejkal) 에너지국제협력전략부장, 피터 자보스키(Petr Zavodsky) 신규원전추진국장 및 CPIA(체코전력산업계연합) 관계자 등 대규모 대표단이 EU-APR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다.

현재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체코는 2개의

원전 사이트에 각각 1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주), CGN(중국), ROSATOM(러시아), AREVA(프랑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로, 이들 모두가 한 자리에 다시 모여 총탄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인데, 체코 대표단의 이목을 끌고 이들과 장시간의 논의를 벌인 우리 측에 1차 승리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낸 전시회라 할지라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최근 불거진 한-중 양국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 세관의 통관 절차와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짐에 따라 우리는 각 기관의 전시 모형을 반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PR 1400 원전 모형과 PLUS7, ACE7 등의 연료 모형, 증기발생기 모형 등을 전시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원전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음을 자평하면서, 각국의 경쟁사들을 보며 제2의 원전 수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극복해야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원전 기술력만큼이나 더욱 효과적인 홍보 부스 구성을 위해 그 동안 우리가 들인 노력이 포스트 UAE 탄생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